

친환경적인 포장의 생활화



김성숙 박사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합리화 추진단

서론

대형할인매장을 다녀오면 이것저것 물건을 사 가지고 오는 통에 정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정리가 끝난 후에는 수북히 쌓인 포장재를 재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도 수월하지는 않다.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도 왜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할까' 하는 것이다. 필요한 알맹이를 꺼내 놓은 후에도 사들고 온 분량만큼의 포장재쓰레기가 항상 남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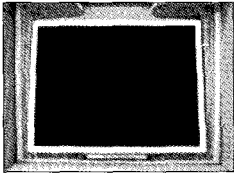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 가운데 40%가 포장재 쓰레기라고 하는데 더욱이 포장재 쓰레기는 좀처럼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과대포장, 화려한 포장에 현혹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렌타인데이나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보면 알맹이보다 겉포장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것 투성이다.

책임있는 소비와 포장규제 제도

소비자들은 각종 포장재질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무지하

기 때문에 함부로 쓰고 많이 쓰기고 한다. 얼마 전 시중 유통되는 음료수 종이포장재에서 어린이나 노약자, 천식환자에게 해로운 이산화황이 나온 것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내년부터 폴리염화비닐(PVC)로 된 포장재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PVC 포장재는 김밥이나 샌드위치, 달걀 등을 담는 그릇으로 활용한 투명한 포장재로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다. PVC는 납, 아연 등 중금속과 왁스, 발암물질로 알려진 디스프탈레이트(DEHP) 등이 함유돼 있어 제조과정이나 매립시 다이옥신, 독성첨가물이 유출될 정도로 환경유해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

소비자들이 과대포장에 길들여지지 않고 위험한 포장재질에 대한 경각심을 의식한다면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은 상당수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포장방법에 대한 규제는 과대포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상자 안에 남은 공간(포장공간비율)을 일정비율로 제한하고 여러번 포장하는 사례를 규제하는 제도이다. 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등 각 제품의 종류별로 작게는 10%이하에서 3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없는 포장이나 과대포장 등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포장 예들은 얼마든지 많다. 사과, 배와 같은 과일도 육질의 파손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스티로폴과 랩 등으로 여러겹 포장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포장을 하고 있다. 야채나 두부, 콩나물 등도 자유롭게 소비자들이 먹을 만큼 덜어서 비닐봉지에 담아 가면 좋을 텐데 야채받침과 랩으로 많은 양을 사전에 포장하고 있어 소비자에게는 불필요한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와 포장단위가 큼으로 인해 많



종이 원통제 사용

이 사야하는 등 곤란함을 주고 있다.

포장재질에 대한 규제는 재활용이 곤란한 재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1993년에 완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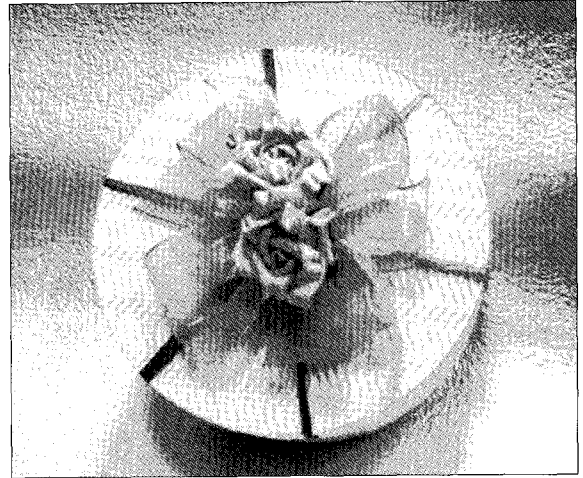
형 및 모든 종합제품에 발포폴리스티렌 재질사용을 금지하고 2001년 1월부터 PVC 수축포장재와 PVC 코팅한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한 적이 있다. 더불어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재질의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PVC나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는 값이 싸고 편리한 점이 있지만 더불어 거기에 담긴 식재료나 이것을 다루는 사람의 안전성을 고려해 본다면 기피해야할 대상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합성수지나 비닐제품 포장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003년도 1월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서도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등 4대 포장재질에 대해서 생산자가 제품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포장재를 만드는 업자나 이 포장재를 이용하는 제조업자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10억 이상이 넘는 경우 재활용의무대상자가 되고 미리 정해진 의무량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의 책임성을 증가시켜서 생산라인자체에서 환경에 유해한 포장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철저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재활용분리수거가 전제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는 재활용마크를 확인하여 분리수거 대상인 포장재가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잘못 분류된 만큼 매립이나 소각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도 부담이지만 잘못 소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은 더 문제이기 때문이다.

포장 폐기물 줄이기

위에 소개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일반 국민인 소비



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은 배가되거나 전혀 없어지거나 한다. 소비자들은 과대포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번 우리나라 꽃포장을 예를 들어 보자. 아름다운 꽃이 파문힐 정도로 비닐로 싸고 한지나 주글주글한 반짝이 포장지에다가 덧붙여진 리본으로 묶어야 직성이 풀린다. 왜 이리도 싸고 또 싸는 것일까. 외국영화에서 보면 꽃다발에 간단히 리본만 묶은 채로 연인에게 선물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오히려 절제와 단순함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결국 다시 쓰지 못하고 버려지는 포장재는 단호히 'No'를 하자.

포장재가 알맹이보다 근사한 경우는 명절날의 '갈비세트'이다. 대나무받침대나 상자들에 잘 싸여진 것을 보면서 포장 값이 많이 차지하겠구나라고 누구나 생각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대나무받침대나 상자, 그리고 좋은 포장종이나 끈 등은 버리지 말고 잘 정리하였다가 재활용해서 쓴다. 잘 보관해 두었다가 선물 포장이나 아이들 '만들기' 용 재료로 활용하면 아주 좋다. 좋은 포장재를 사려면 그만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쓰레기 줄여서 좋고 자원절약해서 좋으니 일석이조이다. 리필제품의 사용도 지속되어야 한다. 한동안 유행이 있었던 리필제품사용은 이젠 시들해져 버렸다. 소비자들은 리필제품의 가격이 현저히 싸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외면하기 시작했다. 또 매년 신제품이 나오는 바람에 리필제품을 구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리필제품에의 활용은 불필요한 용기, 포장재를 줄이는데 중요하므로 리필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등 리필제품이 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

포장재질 가운데 인체에 해롭거나 환경에 유해한 것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유해한 포장재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보다 덜 해롭고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찾아보기를 권하고 싶다. 표백이 덜된 종이, 비닐코팅이 되지 않은 포장재, PVC가 포함되지 않은 포장재, 덜 복잡하게 구성된 포장재,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편리하고 값싸지만 해로운 합성수지 포장재는 덜 해로운 포장재로 대체될 것이다. 값이 비싸지면 그만큼 포장을 줄이면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친환경적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포장재에 대한 환경마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환경마크협회자료에 의하면 현재 몇몇 CD 케이스와 PE용기만 환경마크를 획득하고 있는 정도이다. 소비자들이 포장재가 친환경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해한 포장재질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친환경적인 포장재질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손쉽게 소비자가 '친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맺음말

대량생산, 대량유통체계에서 포장의 절대적인 양을 줄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 완충재(충격완화용 포장재)와 같은 것인데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배달 온 전자제품 택배서비스에 포장재를 수거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포장재를 분리 수거하는데 드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파손없이 재활용할 수 있으니 재활용처리비용도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을 핵전쟁, 인구증가, 식량부족, 지구온난화, 자원고갈의 예를 들고 있다. 소비자 각자가 행하는 아주 작은 친환경적인 노력들은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포장재에 대한 절제와 대체, 그리고 재활용은 분명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환경마크



세계 각국의 환경마크

